

다니엘서 - 번호 90

더 데일리 해부: 논란과 모순에 대한 역사적 고찰

Jeff Pippenger

2024-02-23

이전 기사에서 마지막 단락을 자세히 보셨다면, Early Writings라는 책에 실린 그 단락의 원출처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A. G. 다니엘스는 1910년에 화이트 자매와 'the daily'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할 때 그 책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합니다. '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의미한다는 '거짓'을 굳히려 하던 이들은, 심판의 시간 기별을 선포하던 이들에게 주어진 올바른 견해에 대해 화이트 자매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지지했다는 사실을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꾸며낸 '거짓'은 화이트 자매가 구체적으로 한 경고는 시한 정하기에 관한 경고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서 화이트가 그의 전기에서 입증하려 한 바이며, 그의 아버지(엘렌 화이트의 아들)와 다니엘스가 날조된 인터뷰를 통해 증명하려 했던 바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the daily"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화이트 자매와 다니엘스 사이에 면담이 있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 소위 면담은 1931년에 제기되었다. 만약 1910년의 한 면담에서 화이트 자매가 "the daily"에 관한 다니엘스의 타락한 견해를 지지했다면, 화이트 자매가 그의 견해를 열심히 추진하는 인물이라고 지목했던 그가 왜 그녀의 지지 사실에 대해 21년 동안 침묵했겠는가? 그것은 면담이 아니라, 꾸며낸 것이었다.

날조된 인터뷰는 그녀의 'the daily'에 대한 진술의 맥락을 마치 그것이 시한 설정에 대한 그녀의 경고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고, 아서 화이트는 1931년의 역사 서술에서 그가 제시한 방식으로 그 거짓말에 자신의 지문을 남겼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야 했으며, 역사 수정주의는 배제했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글을 Early Writings의 그 구절이 유래한 1850년의 문구로 마무리했다. 그 진술은 처음 1850년에 Review에 실렸고, 이어 Experience and Views라는 책에도 다시 실렸다. 세 번째로는 Early Writings에 실리는데, Early Writings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일부의 주장처럼, 많은 Spirit of Prophecy 저술들이 변경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내게 1843년 도표가 그분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그 어떤 부분도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그 수치들이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임을 보여 주셨다. 또한 그분의 손이 그 위에 있어 몇몇 수치에 있는 오류를 가리셨기에,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Daily'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주께서 심판의 시간의 외침을 전한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 연합이 있었을 때에는 거의 모두가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1844년 이후 혼란 속에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이 글은 원래 1849년에 발행된 The Present Truth라는 간행물에 실렸으나, 1850년 11월 Review and Herald에 게재되었다. 원래의 원고에서 화이트 자매는 주님께서 최근에 그녀에게 보여 주신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전체 글을 읽어 보면 많은 주제가 다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그녀가 보여 주심을 받은 주제는 약 스무 가지에 이른다. 요점은, 원문 기사에서 "the daily"라는 주제와 "time setting"이라는 주제가 그녀가 보여 주심을 받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계시였다는 것이다.

원본 원고에서는 그것들이 서로 다른 문단에 구분되어 있었다. 해당 본문이 "Experience and Views"에 재수록될 때, 편집자들은 화이트 자매가 "the daily"에 대한 선구자들의 견해를 옹호하는 문단을 시한 설정을 경고하는 다음 문단과 결합했다. 원문을 읽을 때, 일부 주제들이 대문자 표기를 통해 강조되어 있음을 유념하라. 그녀가 "the daily"에 대한 선구자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문단에서는 "Daily"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다음 문단에서는 "Time"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하여, 그녀에게 보여 주어진 두 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주께서 최근에 환상 가운데 내게 보여 주신 바를 간단히 전하고자 한다.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천사들이 서로에게 품은 사랑을 보았다. 천사가 말하였다—너희는 그들의 사랑을 보지 못하느냐?—그것을 따르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책망을 형제에게 돌리기보다 차라리 자신에게 돌려라. 나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기별이 어떤 이들에 의해 그 분명한 의미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우리 구주께서 하신 말씀의 참된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나는 소유를 파는 목적이,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함을 보았다. 일할 수 있는 이들이 게으르게 지내도록 부양하고 방조하는 것은 죄다. 어떤 이들은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 왔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위함이었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집에 있으면서 자기 손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하여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고, 현재 진리의 귀한 사업을 붙들어 주기 위해 드릴 것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낫다.

내가 보니, 몇몇은 불신자들 앞에서 병자가 나음을 받도록 기도하는 데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이가 있어 야고보서 5장 14, 15절에 따라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방 밖으로 내보내신 다음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불신으로부터 분리되기를 구해야 한다.

그때 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시어,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어 찢기신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떼어진 떡을 먹도록 주시며, 흘리신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도 주셨던 때로 다시 이끌림을 받았다. 나는 모든 이가 이 일들에 관해 깨달음으로 행하고, 이 점에서 예수의 본을 따르며, 이러한 예식을 행할 때에는 불신자들과 가능한 한 구별되어 있어야 함을 보았다.

그때 나는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신 후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질 것임을 보았다. 천사가 말하였다—악인들의 멸망이나 죽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양의 진노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성도들은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력 있고 두려울 것이나, 그때 그들은 기록된 심판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심판의 집행은 천 년이 끝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성도들이 불멸로 변화되어 함께 들러 올라가 자기들의 수금과 면류관 등을 받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심판의 자리에 앉는다. 책들이 열리니, 생명의 책과 사망의 책이라. 생명의 책에는 성도들의 선행이, 사망의 책에는 악인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들은 율법서, 곧 성경과 대조되었고, 그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졌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 죽은 악인들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보라! 천사가 말하였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뜻을 같이하여 심판석에 앉아, 각 악인에게 육체로 행한 대로 그에 합당한 몫을 헤아려 주니, 심판이 집행될 때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이 그들의 이름 옆에 표기된다. 나는 보았는데, 이것이 거룩한 성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 곧 그 천 년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천 년이 끝날 때, 예수님과 천사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을 떠나시고, 그가 그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시는 동안 악인들이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고, 그를 '찢었던' 바로 그 사람들도 살아나 그분의 모든 영광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과 성도들을 멀리서 보고 그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손과 발의 못 자국과, 창이 그의 옆구리를 찢은 자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못 자국과 창 자국이 그때에는 그의 영광이 될 것이다. 천 년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니 산이 둘로 갈라져 거대한 평지가 되고, 그때 도망하는 자들은 막 살아난 악인들이다. 그때 거룩한 성이 내려와 그 평지 위에 자리 잡는다.

그때 사탄은 부활한 악인들에게 자기 영을 불어넣는다. 그는 도성 안의 군대는 작고 자기 군대는 크며 성도들을 이겨 도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을 부추긴다. 사탄이 자기 군대를 규합하는 동안 성도들은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낙원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 앞장서 그들을 이끄셨다. 문득 사랑스러운 구주께서 우리 곁에서 사라지셨다. 그러나 곧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예수님 주위로 모였고, 예수님께서서 도성의 문들을 닫으시자마자 악인들에게 저주가 선포되었다. 도성의 문들이 닫혔다. 그때 성도들은 날개를 펴 도성 성벽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의 면류관은 눈부시고 영광스러워 보였다. 그것은 면류관 안에 또 다른 면류관이 겹쳐진, 모두 일곱 겹이었다. 성도들의 면류관은 지극히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었고 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일어나 모두 함께 도성의 꼭대기로 옮겨갈 때, 나는 그 광경에 황홀해졌다.

그때 악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그들에게 뿜어져 나와 그들을 삼켜 버렸다. 이는 심판의 집행이었다. 그 뒤 악인들은 천 년 동안 예수와 한마음이 된 성도들이 그들에게 정해 준 대로 보응을 받았다. 악인을 삼켜 버린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이 온 땅을 정결하게 했다. 부서져 거친 산들이 맹렬한 열기로 녹아내렸고, 대기 또한 그러했으며, 모든 지푸라기는 소멸되었다. 그때 우리의 유업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고, 우리는 새롭게 된 온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 우리는 모두 큰 소리로 외쳤다. 영광, 할렐루야.

나는 또한 목자들이, 성경이 뒷받침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요점을 옹호하기 전에,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모든 기별에 참여해 왔고 현재의 모든 진리에 굳건한 이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목자들은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가 목자들의 연합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불행한 분열을 막을 것임을 내가 보았고, 그러면 귀한 양떼가 분열되고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위험이 없을 것이다.

9월 23일,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시기를, 그분이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려고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셨고, 이 모으는 때에 노력들을 배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흩어짐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타격을 입고 찢겼으나, 이제 모으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싸매실 것이다. 흩어짐의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려는 노력들이 거의 효과가 없어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손을 펴신 모으는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려는 노력들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모든 이가 이 일에 하나 되어 열심을 내야 한다. 나는 지금 모으는 때에 우리를 인도할 본보기로 삼겠다며 흩어짐의 때를 거론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임을 보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그때 하신 것 이상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모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설교되는 것만큼이나 신문에 게재되는 것도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내게 1843년 도표가 그분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그 어떤 부분도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그 수치들이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임을 보여 주셨다. 또한 그분의 손이 그 위에 있어 몇몇 수치에 있는 오류를 가리셨기에,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Daily"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는 인간의 지혜로 덧붙여진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심판의 때의 외침을 전한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것을 보았다. 1844년 이전에 연합이 존재하던 때에는 거의 모두가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에 뜻을 같이했으나, 1844년 이후에는 혼란 속에서 다른 견해들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어둠과 혼란이 뒤따랐다.

주님께서 내게 1844년 이후로 시간은 시험이 아니었으며, 다시는 시간이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셨다.

그때 나는 주께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옛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등, 큰 오류에 빠져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의 사업에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도록 고안된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 있을 것이고,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의 재정과 자원도 다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 큰 오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심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지난 수년 동안 빠져 있던 자기들의 오류를 자복하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았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그 대목은 "주께서 최근 환상 중에 내게 보여 주신 것의 간단한 개요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여러 주제가 제시되었고, 그녀는 'the daily'를 다루는 단락을 다음 단락과 결합하지 않았다. 그 일은 나중에 이 대목을 Experience and Views에, 이어서 Early Writings에 수록한 편집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Experience and

Views에서는 편집자들이 처음 여덟 단락을 생략했고, 그녀가 'the daily'와 시한 설정에 관해 보여 받은 내용이 담긴 단락들을 합쳤다. Experience and Views는 1851년에 출판되었고, 이어 Early Writings는 1882년에 출판되었다.

Early Writings는 본질적으로 Experience and Views에 실렸던 네 개의 단락과 거의 동일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었다. Experience and Views에서는 시한 설정을 다룬 한 문장짜리 단락이 'the daily'를 다룬 바로 앞 단락과 합쳐졌다. 그리고 원래 시한 설정 단락 다음에 오던 단락이 포함되었다. Early Writings에서는 Experience and Views의 다른 대목에서 가져온 한 단락이, 이제 'the daily'와 시한 설정을 모두 다루게 된 그 단락과, 원래 그 뒤에 이어져 옛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것이 왜 잘못된지 밝히던 단락 사이에 배치되었다.

Experience and Views의 다른 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가 Early Writings의 본문 한 대목에 삽입된 그 단락은 1844년 이래 "the daily"에 관해 생겨난 혼란만 더했을 뿐이었다. 그 단락은 화이트 자매의 환상을 서술한 원래의 글에는 없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시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나아가 주님의 흠어진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며, 때를 정하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는 때가 다시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이들이 때를 설교함으로 생겨나는 거짓된 흥분에 사로잡히고 있음을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때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나는 이 기별이 그 자체의 기초 위에 설 수 있고,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 때가 필요하지 않으며, 큰 능력으로 나아가 그 일을 이루고, 의로우심 가운데 신속히 마쳐질 것을 보았다." 경험과 견해, 48.

Experience and Views의 48쪽에 있는 문단은 서로 다른 두 문단을 결합해 만든 Early Writings의 문단 뒤에 삽입되었고, 원래의 서술에는 없던 시기 설정에 강조를 두었다.

1931년에, 예루살렘의 백성을 다스리던 옛 지도자들이 대니엘스가 1910년에 화이트 자매를 인터뷰했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대니엘스가 제공한 증언에서 그는 1843년 도표를 언급하며, 화이트 자매를 인터뷰하는 동안 도표에 존재하지도 않는 성소를 가리켰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Early Writings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그녀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그녀의 답변을 바탕으로, Early Writings에 실린 'the daily'에 대한 개척자 견해를 지지하는 그 구절이 사실은 때를 정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밖에 결론지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꾸며낸 인터뷰로부터 21년이 지나고, 인터뷰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사망 이후 16년이 지난 뒤, 대니엘스는 그 증언을 제3세대의 역사 속에 위치시킨다.

F. C. Gilbert는 히브리어 학자였으며, 그는 개척자들과 엘렌 화잇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the daily"를 이교로 보는 올바른 견해를 단순히 지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지자 다니엘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그것을 변호했다. 그는 그 시기 재림교회에서 저명한 히브리어 학자였다. Daniells와 Prescott이 밀어붙이던 "the daily"에 관한 논쟁이 계속 커져 가자, Gilbert는 개척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맞섰던 저명한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10년 6월 8일 엘렌 화잇과 면담을 했고, 이후 자신과 화잇 자매가 나눈 내용을 기록했다. Daniells의 증언은 F. C. Gilbert의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

Manuscript Releases 20권 17쪽부터 22쪽에서, Sister White는 "daily"에 대한 Daniells와 Prescott의 입장을 다룬다. F. C. Gilbert가 Ellen White와의 인터뷰를 보고한 글에서 볼 수 있는 표현들은 Manuscript Releases의 해당 구절에서 Sister White 자신이 진술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Manuscript Releases가 간행되어 공개되기 전 수년 동안, 그가 Sister White와의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에 대해 제기한 Daniells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옹호해 줄 구체적인 영감적 증언은 없었다. 더 중요하게는, 그의 잘못된 "daily" 견해를 지지해 주는 영감적 승인도 없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Manuscript Releases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그의 잘못된 "daily" 견해를 지지해 주는 영감적 승인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오늘날, 라오디게아적 재림교계에서는 화잇 자매가 "the daily"에 대해 아무 입장도 없으며, 다만 그것이 "시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무언가가 뒤바뀌었는데, 뒤바뀐 것은 "the daily"의 참된 입장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소수 의견이 되었다는 점이다. 1910년에는 소수 견해가 다니엘스와 프레스콧이 밀어붙이던 콘라디의 견해였고, 다수 견해는 개척자들의 입장이었다.

다음은 화이트 자매와의 면담에 관해 F. C. 길버트가 남긴 진술로, Manuscript Releases와 비교해 보아야 하며, 그 전문은 이 The Book of Daniel 연재의 제81번째 글에 실려 있다.

다니엘스와 프레스콧은 . . . 이 일의 원로들에게 아무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 . . 다니엘스가 나를 만나러 여기에 왔지만, 나는 그를 만나 주지 않았다. . . . 나는 무엇에 대해서든 그에게 할 말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꾸며내려는 'daily'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 . . 내가 워싱턴에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마치 둘러싸 버린 무엇인가가 있는 듯했고, 나는 그들에게 닿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 'daily'라는 주제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 . . 나는 그들이 내 메시지에 반대하여 활동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사람들은 내 메시지에 별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총회장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 . . 그 직책을 유지할 사람이 아니다.

만약 'daily'의 이 메시지가 시험의 메시지라면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셨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처음부터 끝을 내다보지 못한다. . . . 나는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그들 중 누구도 만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은 다니엘스 형제가 회장직에 충분히 오래 있었다는 것이다. . . . 그리고 이 일들에 관해 그와 더는 어떤 대화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다니엘스를 만나지 않았고, 그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그와 면담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 . .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일에 관여하지 말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 . 주께서 그것을 듣지 말라고 나를 금하셨다. 나는 그것에 조금도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 . .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마귀의 계략이다." 1910년 6월 8일 엘렌 화이트가 그에게 해 준 면담에 대한 F. C. Gilbert의 보고.

다음 글에서 이 주제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겉모습 너머를 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 큰 빛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자신의 도덕적·영적 상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 "정녕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한다. 나도 그들의 미혹을 택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하리니, 내가 불렀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였다." 이사야 66:3, 4; 데살로니가후서 2:11, 10, 12.

하늘의 교사께서 물으셨다. "실상은 세상 정책에 따라 많은 일을 행하며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위를 받으신다는 가장으로 마음이 미혹되는 것보다 더 강한 기만이 무엇이겠는가? 오, 한때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과 영을 경건의 모양으로 오인하고, 스스로는 부요하여 재물이 늘었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도, 실상은 모든 것이 필요한 처지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참으로 큰 기만이요, 사람을 현혹하는 미혹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당신의 충성된 종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외치고 있는 동안, 홀연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고백으로 마음을 겸비하게 하며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대열 가운데 정결케 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부자라, 재물이 풍부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랑하면서 안일하게 쉬지 않을 것이다.

누가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금은 불로 연단되었고, 우리의 옷은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았다'? 나는 우리의 스승께서 소위 의의 옷들을 가리키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것들을 벗겨 내어 그 아래에 있는 더러움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어떻게 외식으로 그들의 더러움과 품성의 부패를 가려 버렸는지 보지 못하느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신성한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린 곳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있고, 힘이 부족하다.'

지금 자기 자신의 배도의 누룩이 퍼지고 있는 교회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이 행한 일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마침내 자신을 혐오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악을 거스르고 선을 택하며,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높은 부르심에 이르러, 영원한 진리의 터 위에 서서 믿음으로 자신을 위해 준비된 성취들을 붙잡을 때, 교회는 치유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단순함과 순결 가운데 나타나, 세속적 얽매임에서 분리되어, 진리가 참으로 교회를 자유롭게 하였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그 교회의 지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의 대표자들이 될 것이다. 증언, 제8권, 249, 250.